논어 5편 공야장 13장 · 원문·풀이

子貢曰：「夫子之文章，可得而聞也；夫子之言性與天道，不可得而聞也。」

독음 · 자공왈 부자지문장 가득이문야 부자지언성여천도 불가득이문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공자의 문헌과 예에 관한 가르침은 들을 수 있었지만, 본성과 천도에 관한 말은 쉽게 듣지 못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貢 바칠 공 공 / 曰 가로 왈 / 夫 지아비 부 부

之 갈 지 / 文 무늬 문 문 / 章 문채 장 장 / 可 옳을 가 가

得 얻을 득 득 / 而 말이을 이 / 聞 들을 문 문 / 也 어조사 야

言 말씀 언 언 / 性 성품 성 성 / 與 너울너울할 여 여 / 天 하늘 천 천

道 길 도 도 / 不 아닐 불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